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564-01

부모교육 콘텐츠 '놀자'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모교육 콘텐츠 '놀자'



본 자료집의 사진은 자료집 제작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어떠한 용도로든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부모놀이 콘텐츠 '놀자'

https://m.post.naver.com/ieceknue-nolza



교육부「놀이와 교육」공식 포스트

부모 주변에 놀이에 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놀이일까요?
초등학교에 가서는 놀이가 필요 없을까요?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놀이가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함께 놀이와 교육을 바르게 알고 실천해보도록 해요.

Contents

SERIES 1 놀이 이야기 004

1. 놀아준다? 놀이한다! 005
2. 놀이는 본능! 013
3.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행복한 영유아 023

SERIES 2 함께 놀자 034

1. 흥부가족 함께 놀자 035
   윤서와 윤찬이네 가족의 놀자 이야기
   - 낙서에서 모양찾기
   - 오이마사지
   - 이불놀이
   - 종이컵 놀이
2. 아이와 함께 놀자 066
   시율, 시후 형제의 '다람쥐샘'
   놀이 이야기 따라잡기
   - 동물들의 멀리뛰기
   - 낙엽으로 공만들기
   - 숲에서 낚시하자!
   - 계란판으로 놀아요
3. 우리도 함께 놀자 083
   예비교사들의 놀이 이야기
   - 숲속의 욕심꾸러기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닭



SERIES 3 방학, 성장을 위한 쉼 090

1. 여름방학이 두려우신가요? 091
2. 방학이 두려운 워킹맘들에게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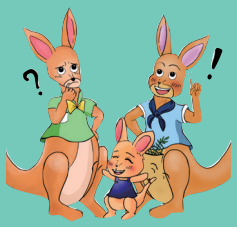
SERIES 4 유치원 놀이로 물들다 102

물들다 1 놀이의 실천: 비우고, 채우기
물들다 2 놀이 유치원으로의 변화
물들다 3 놀이로 만들어가는 소확행

SERIES

1

놀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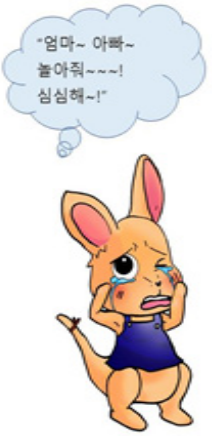
놀이이야기 1. 놀아준다? 놀이한다!

놀이이야기 2. 놀이는 본능!

놀이이야기 3.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행복한 영유아

놀아준다? 놀이한다!







일상이 바쁜 하루 하루
오늘도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네요.

놀이는 아이들의 삶이고 학습이라는데…
왜 우리 아이는 자꾸 놀아달라고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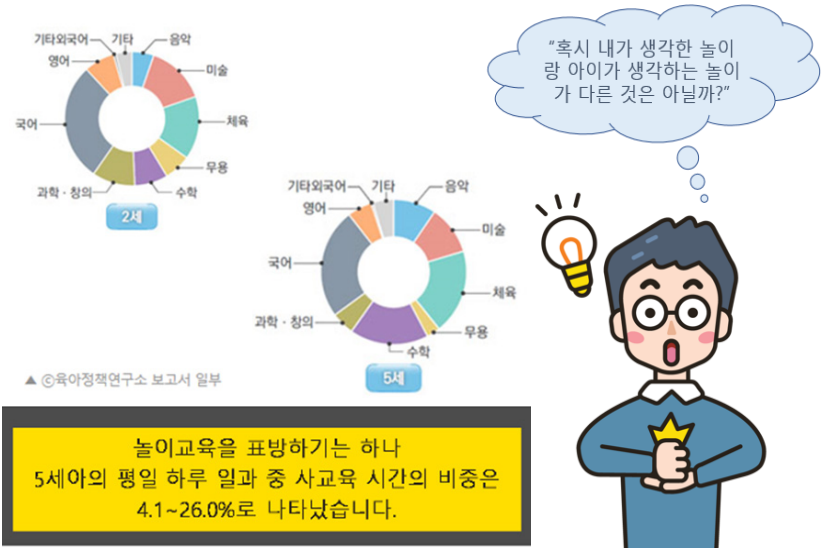


혹시…

내가 생각한 놀이랑

아이가 생각하는 놀이가

서로 다른건 아닐까요???







그동안 생각해봐요.

자녀의 놀이를

돈을 들여서 외부에 맡기거나

유튜브만 보여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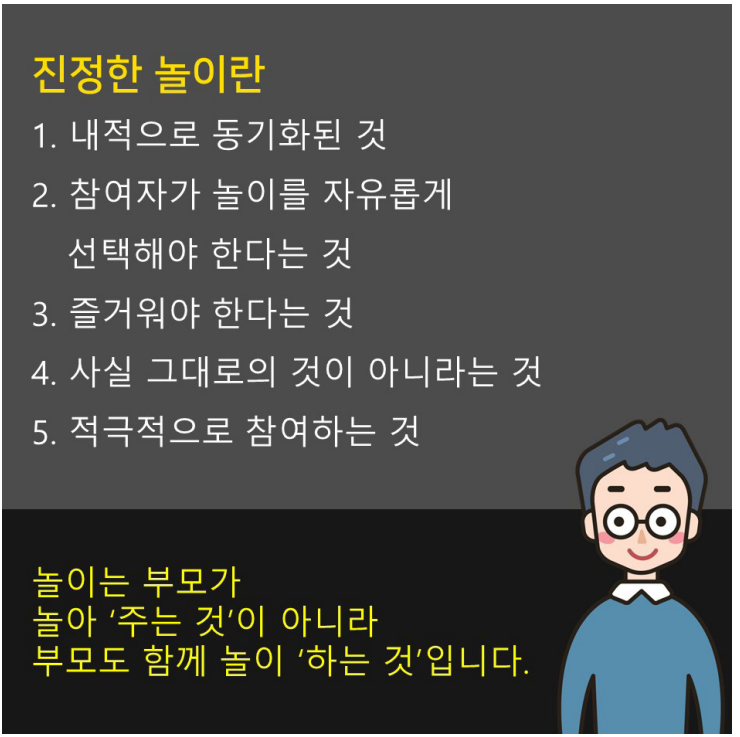
대리만족을 느꼈던 건 아닐까요?

진정한 놀이란…

내적 동기,

자유와 선택

그리고 즐거움



놀아준다?
놀이한다!



놀이는

부모가 놀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놀이하는 것'입니다.

‘놀아준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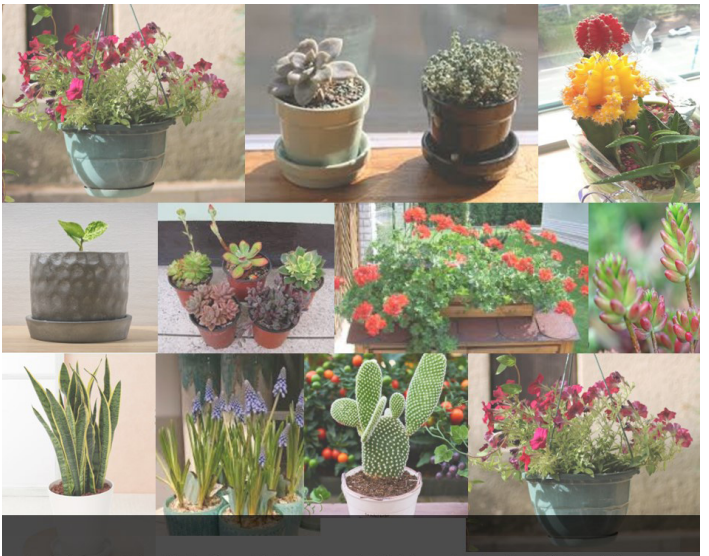
‘놀이한다’로의

변화를 위하여!!!



놀이는 본능!





누구나 한번쯤은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식물을 구입해본 경험이라도 있을 겁니다.

식물을 키워 보셨나요?



식물을 키울 때 또는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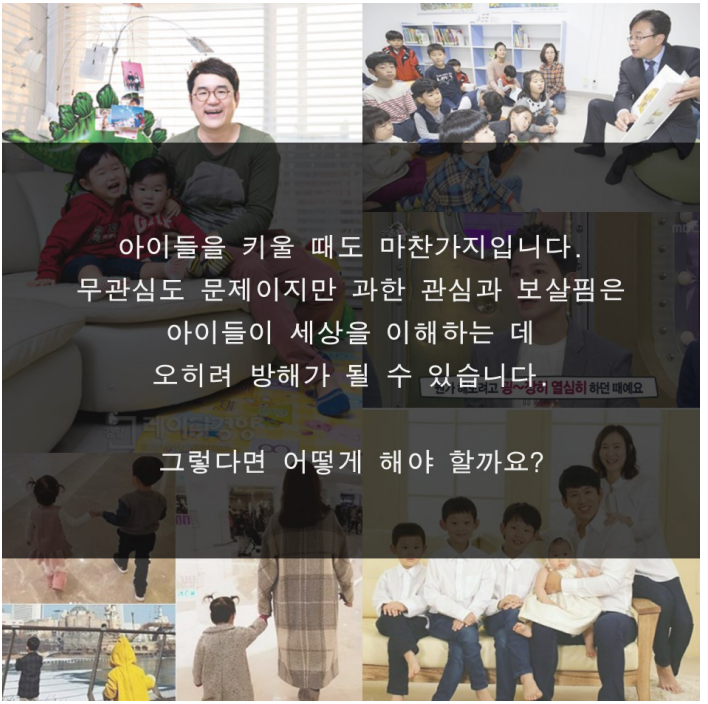


"물은 얼마나 자주 주나요?"

식물을 처음 키운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일거예요.


물을 주지 않아 말라비틀어지거나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썩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관심도, 너무 적은 관심도

아이들에겐 해로울 수 있어요.



화분이 진동하거나 화분이 기울어짐으로써
물을 줘야 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화분이 개발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신호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신호의 답은 ‘놀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놀이를 관찰하고, 함께 놀다 보면
아이들에게 언제 물을 주어야 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놀이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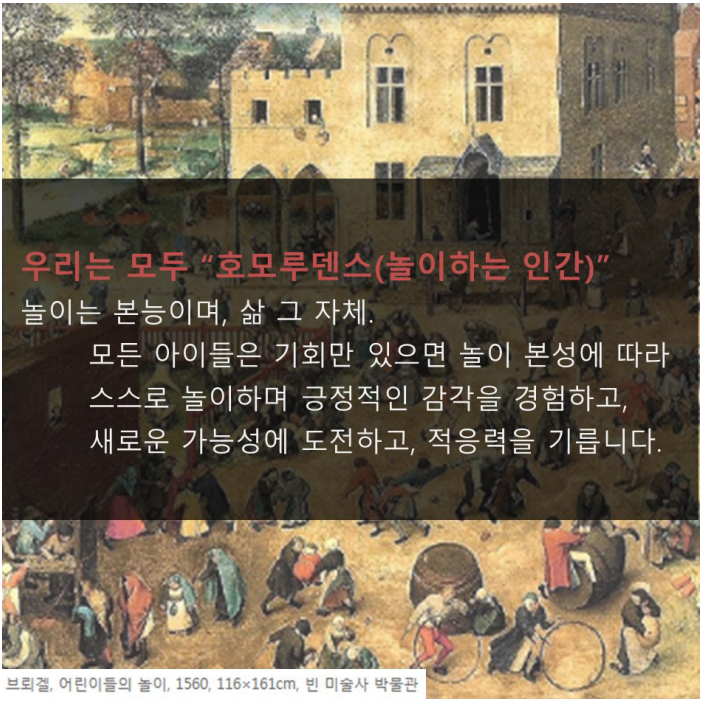
물 주는 신호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신호는

‘놀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놀이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놀이는 아이의 본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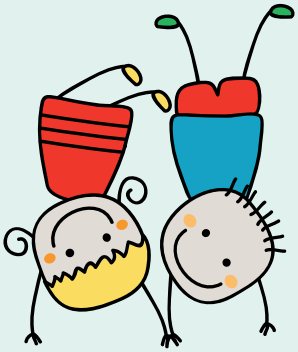
브뢰겔, 어린이들의 놀이, 1560, 116×161cm, 빈 미술사 박물관



모든 아이들은 놀이 본성에 따라 놀이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배웁니다.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행복한 영유아



CHILDREN'S DREAMS GROW THROUGH PLAY

유아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란다

2018년 5월 30일(수)

"놀이가 교육 : 유아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란다" 학부모 놀이 워크숍

‘놀이’!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대두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꿈을
놀이에서 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현장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아이



총신대학교 허미애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너 꿈이 뭐니?"
의사요, 변호사요, 판사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40% 이상이 없어진대요.

놀이에 대한 동상이몽

사실 꿈은 꾸어야 되고 가꾸어 나가는 건데

부모는

일방적으로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주기도 하고

그 꿈을 향해 가는 아이들을 즈려밟기도 합니다.



‘놀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능력 없음” “너 할일 없이 놀고 있다며”

└, 백수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치, 놀고 있네”

└, 부질 없이 행동한다는 뜻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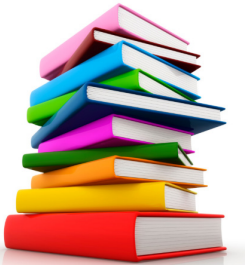
“먹고 노는게 일이냐?”

└, 너는 도움이 안돼

“놀면서 허송세월 할래?”

“너는 공부 안하고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해?”

└, 노는 건 공부보다 못한거야



유아에게 놀이란?

배움의 수단이자 통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는 것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경험하는 최적의 방법

공동체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최상의 가치



‘놀이’와 ‘배움’

유아가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거래요.

부모는 우리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기다려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사와 부모의 차이는
교사는 주의깊게 관찰하고 기다렸다가
적기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환경
- 놀이 몰입을 위한 충분한 시간
- 세심한 관찰, 기다림, 적기에 중재



‘놀이’와 ‘행복’

미래 사회를 살아갈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의 핵심은 행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며,
오늘 유아가 하는 놀이는
바로 오늘 유아가 누려야 하는 행복이며,
이것이 우리들이 유아의 놀 권리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놀이의 본질을 지켜주기 위한 유아 부모의 과제



'놀이가 아닌 것 같으나 모든 일상이 놀이가 되는'
그 속에서 아이가 행복해하는가?
그 두 가지를 봐주세요.

부모는 유아에게 놀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안내자, 조력자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부모는 놀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믿고/기다려주며
유아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노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자녀와 신나게 놀아보세요!!!”

SERIES

2

함께놀자



함께놀자 1. 홍부가족 함께 놀자

함께놀자 2. 아이와 함께 놀자

함께놀자 3. 우리도 함께 놀자

함께놀자 1. 흥부가족 함께 놀자

윤서 윤찬이네 가족의
놀자 이야기



• 첫 번째 이야기_ 낙서에서 모양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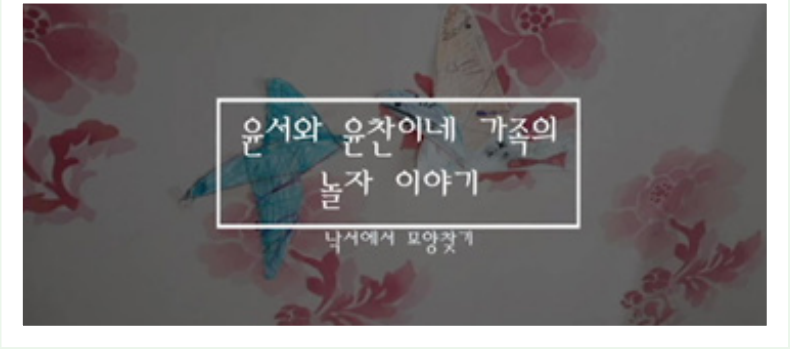
• 두 번째 이야기_ 오이마사지

• 세 번째 이야기_ 이불놀이

• 네 번째 이야기_ 종이컵 놀이

윤서와 윤찬이네 가족이 놀이를 한대요.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엄마 "얘들아 오늘은 여기에다가 낙서를 하는거야.
샤샤샤샥~ 이렇게! 해봐. 막 낙서 하는거야"

윤서·윤찬 "우와 신나겠다!! 우아아아아~~ 낙서하자!"



엄마 "이렇게 윤찬이처럼~ 숨은 모양을 찾아서 색칠해볼까? 어디보자~ 음~ 뭘 찾아볼까?"

아빠 "아빠는 집! 집을 찾았어요~"

윤찬 "나는 리본!!"

엄마 "오~ 리본, 엄마랑 통했어!"

엄마 "오호호홍 오~ (숫자) 1도 찾았어?"

윤찬 "엄마 눈 감고 있어봐! 10도 찾았어!!"

윤서 "뭐야 그건 내가 찾은 거잖아~~~~!!"





윤찬 "엄마! 얼굴, 내가 찾은 (한글) 'ㅇ'이 얼굴이야~"

윤서 "입, 눈... 'ㅎ'은 여기 있고"

엄마 "벽에다 붙일까?"

윤서·윤찬 "아빠, 테이프~~ 날개에도 붙여줘야 해~ 찢어져."

윤찬 "엄마, 나 여기(벽지)에 붙이면 안돼?"

엄마 "어 거기에 붙여 그럼~"

윤찬 "새 위에~ (테이프를 붙이며) 됐다!"





♬ 색연필로 쓱싹쓱싹 새의 얼굴 그리기~ ♪



엄마 "윤찬아,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윤찬 "이 작품은 새입니다."

엄마 "윤서는?"

윤서 "상어, 고래, 물고기"

윤찬 "으앙~ 내가 위에 붙여야 되는데 누나가 아래 붙이고.
그래야지 진짜 바다랑 새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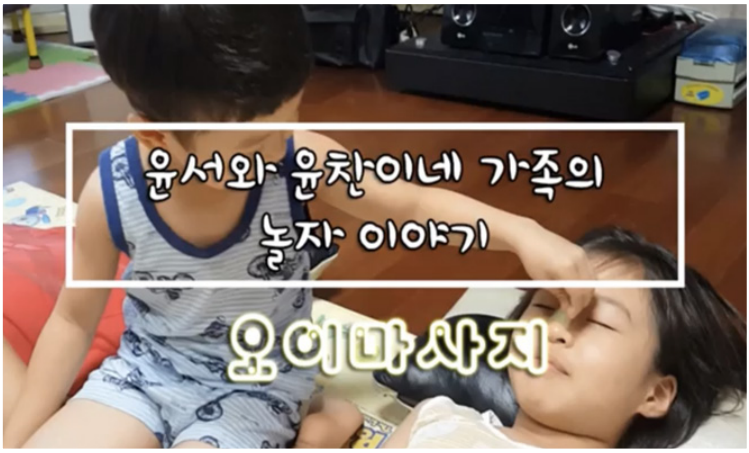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모두 '홍' 많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봐요~^^

"먹지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화장품 광고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아이들과 놀며 피부도 좋아지는 건강한 놀이를 할거예요.



윤서, 윤찬이네 가족과 같이 할 놀이는

'오이 마사지'입니다.

준비물은 오이와 플라스틱 칼!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과 오이를 썰어요.

얇게 썰기 어려우면,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썬 오이는 실컷 먹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 보아요. ^^

썰어놓은 오이는 그릇에 담아서~

오이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손으로 그 감촉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으로, 이동~

"붙이러 갑시다."

이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사랑을 가득 담아, 얼굴에 한가득 붙여요~



우리 아이들과의 놀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이와 함께 하고,
함께 웃고,
웃고 있는 아이들을 봐 주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는 부모님의 얼굴을
우리 아이가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추억의 그 놀이,

이불만 있으면 우리 집은 어느 곳이든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한 번 찾아가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놀이는 '이불놀이'랍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로 인해 매트를 깔으셨다면,
층간소음 걱정은 조금 넣어두셔도 되겠죠^^

첫 번째 이불 놀이 : '이불던지기'



먼저 가족들의 마음을 모아볼까요?
처음에는 서로 각자의 박자대로
뒤로 아래로
이불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지도 몰라요~

다음엔 박자를 맞춰서 볼까요?
항상 아빠, 엄마의 박자를 따라갔다면
이번에는 우리 아이의 박자를 따라가 주세요.

이불놀이가 단순하다면, 풍선을 추가해보세요.
없다구요?
그럼 집에 있는 가볍고,
바닥에 떨어져도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두 번째 이불 놀이 : 김밥말이



친구들과 놀면서 한번씩은 해 보셨죠?
김밥처럼 돌돌 말아봐요!!

세 번째 이불 놀이 : 애벌레가 되어요



아빠가 사랑을 가득 담아서 돌돌 돌돌 말아주었더니,
아이들이 꿈틀꿈틀.
그걸보고 생각해낸 놀이랍니다~

이불로 만들어진 애벌레~
누가 더 빨리 도착하나~



놀이를 통해 나의 어릴적 놀이를 떠올려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적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어느 새로운 별에서 온 아이들이 아니랍니다.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 아이들.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투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들과의 놀이시간
곧 나를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슬아슬 마음이 콩닥콩닥 즐거운

'종이컵 놀이'



윤서, 윤찬이 아빠가 준비했어요.
물론 약간의 시간과 체력이 필요하지만,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즐거운 놀이파티가 열린답니다.

윤서와 윤찬이네의 오늘의 놀이 재료는 '종이컵'이랍니다.





"귀엽지요?"
마트나 문구 코너에 가면
여러 가지 종이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 해볼까요!!

종이컵 놀이 1 : 한 줄 쌓기



먼저 종이컵을 한줄로 쌓아보아요.

서로 양 쪽 끝에서 쌓으면서 만나게 해도 된답니다.
한 줄이 완성되었다면 그 위에 또 한 줄을 쌓아보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놀잇감으로 짧은 시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어요.

종이컵 놀이 2 : 쌓은 종이컵 넘어보기!



자!! 쌓기만 하면 금방 홍미가 떨어지겠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성취감을
한 단계 더 업! 하게 해 줄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쌓은 종이컵을 넘어보기!
윤찬이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이것쯤은 뭐~'

종이컵 놀이 3 : 도전! 더 높아진 종이컵 넘어보기



한 단계 더 높아진 종이컵 벽
'쉽게 가지'라고 말하며 넘던 윤찬이의 당당한 표정과는 다르게
넘어가버린 종이컵 ㅠㅠ.

얼마든지 다시 쌓고, 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윤찬이의 움직임이 달라졌죠?

종이컵 놀이 4 : 종이컵 높이 쌓기



아이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다다르면
이제 최대한 많이 높이 쌓아보는 놀이를 해보아요.

다시 집중력이 엄청나게 발휘되는 시간이랍니다.





의자까지 동원하여 쌓기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쌓을 수 있고,
'충분한 놀이가 이루어진 후'라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웃는 그 웃음만으로도
충분히 모두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종이컵 놀이 5 : 종이컵 정리놀이



마지막으로 정리까지~
동물이 그려져있거나 혹은 색깔 종이컵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아이들과의 정리도 재미있는 놀이가 되겠죠?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신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 시작을 이 종이컵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닐거에요.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족만의 새로운 놀이 방법들을 만들어보세요.

함께놀자 2. 아이와 함께 놀자

시율, 시후 형제의 '다람쥐샘'
놀이 이야기 따라잡기



- 첫 번째 이야기_ 동물들의 멀리 뛰기
- 두 번째 이야기_ 낙엽으로 공 만들기
- 세 번째 이야기_ 숲에서 낚시하자!
- 네 번째 이야기_ 계란판으로 놀아요

시율, 시후 형제가 따라해 볼 놀이는 다람쥐샘의

'동물들의 멀리뛰기'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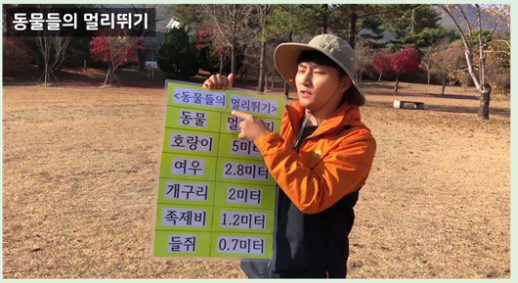
먼저 다람쥐샘의 놀이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호랑이
여우
개구리
족제비
들쥐

이 중 누가 가장 멀리 뛸까요?



몸집이 가장 큰
호랑이가 멀리
뛰는 군요.

멀리 뛰는 순서대로
호랑이, 여우, 개구리,
족제비, 들쥐 순으로
동물 카드를 놓아보세요.



자. 다 되었다면 아이와 함께 출발선에서 준비!

처음에는 가볍게 제자리 멀리뛰기!!



우리 아이는 어디까지 뛰었나요? 들쥐? 쪽제비?

제자리에서 뛰다보니 멀리 못 뛰었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뛰는 것으로는 호랑이에게까지 닿기 힘들다면
달려와서 두발 뛰기로

시율, 시후 형제도 다람쥐샘을 따라 서랍 속에 있었던
한글 카드를 가져와 놀이를 했답니다.

3살 시후는 출발선에서 동동 발을 구르다 처음부터
서너 발 뛰기가 되어버렸답니다.



가정에서의 놀이 tip

- 실내에서 할 때는 바닥에 꼭 매트를 깔아주세요.
- 동물카드로 멀리뛰기를 시작했지만, 이걸 시작으로 동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 엄마, 아빠랑, 바닥에 뛴 만큼 발바닥을 붙여 볼 수도 있어요.

시율, 시후 형제가 따라해 볼 두 번째 놀이는

'낙엽으로 공만들기'입니다.

양파망을 준비해주세요.



양파망 속에
낙엽을
가득 가득 채워주면 됩니다.



뚝딱하고 공이
만들어지지요.

첫 번째 같이 해 볼 놀이는 '농구'
공원에서 골대로 이용할 나무를 찾아보세요.



다람쥐샘은 Y자로 되어
있는 나무를 찾았군요.

찾으셨다면 이제 슛! 준비를 해보세요.



대학농구가 큰 인기였던 그 시대를 같이 사셨다면
코트를 누비던 이상민, 우지원을 기억하실거에요.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슛!

‘농구’를 즐기셨다면 ‘축구’도 해볼까요?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모님의 수고가 필요하답니다.



Y자 나뭇가지 두 개와
일자 나뭇가지를
찾아주세요.

Y자 나뭇가지는 아래와 같이 땅에 고정시키고
일자 나무를 위에 올려주면
골대는 완성이랍니다.





부모님이 수비수가 되어 줄 수도 있고,
다람쥐샘처럼 골대 중간에 나뭇가지를 세워 수비수를 만들어
가족이 모두 같은편이 되어 축구를 즐길 수 있답니다.



시율, 시후는 양파망을 준비해
아파트 놀이터로 나가보았답니다.

낙엽공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이했답니다.



가정에서의 놀이 tip

- 양파망을 구하기 힘들 때는 두꺼운 지퍼백과 끈을 이용해 공을 만들어보세요.
- 집안에서 놀이를 할 때는 이불을 이용해 놀이를 확장해 보세요
  * '윤서와 윤찬이네 가족의 놀자 이야기_세 번째 이야기_이불놀이' 방법 참고(50p)
- 아파트에서는 매트를 까는 것도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시율, 시후와의 식사시간은 항상 전쟁이랍니다.
숟가락과 포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눈과 손의 협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다람쥐샘과 구름샘이 알려준
'숲에서 낚시하자'를 따라해 보았어요.

먼저 낚시대를 만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답니다.







'마끈, 더블클립, 자석'
이 모든 건 집에서 가까운 마트에
가시면 쉽게 사실 수 있답니다.

준비물 하나가 빠졌네요. 긴 나뭇가지도 하나 준비해주세요.



먼저 자석에 마끈을
두 번 꼬아서
묶어주세요.

자석이 빠지면 아이가
삼킬 수 있으니 최대한
힘을 주어 묶어주세요.

마끈의 반대편을
나뭇가지에 묶어서
낚시대를 완성해주세요.



이제 물고기를 만들어 볼까요?

물고기 만들기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답니다.



더블클립을 나뭇잎에
하나씩 찝어주세요.



물고기 만들기
너무 쉽죠~

1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양 편으로 돌을 주워서
동그랗게 어항을 만들어
서로의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을
'더 많이 낚아오기' 시합을 해 보세요.

시율, 시후는 날이 추워져서
밖에 있는 나뭇잎을 집으로 가지고 왔답니다.
모아온 나뭇잎을 더블클립을 이용하고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물고기로 뿅!
변신시켜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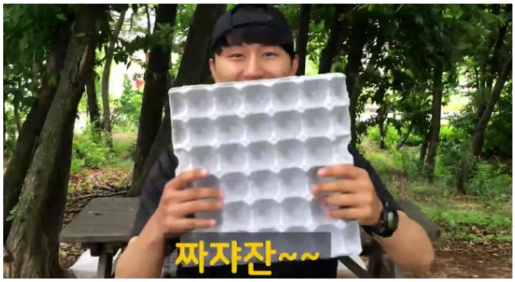


시율이와 시후는 사이좋게 한 바구니안에서 낚시를 즐겼답니다.
3살 시후가 아직은 게임 룰을 따르는게 어렵거든요.

가정에서의 놀이 tip

-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더블클립으로 집을 수만 있다면
  물고기로 만들 수 있어요.
- 낚시대를 가지고 집안의 다양한 물건들을 낚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석에 붙는 것
  붙지 않는 것을 분류하는 놀이로 확장해 볼 수 있어요.

숫자에 관심이 많아진 시율이를 보며 어떤 놀이를 할까 고민하다
다람쥐샘의 '계란판으로 숲 놀이하기'를 따라해 보았어요.



계란판을 준비해주세요.
칸 수는 상관없답니다.
작은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준비된 계란판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채워보세요.

다람쥐샘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채웠어요.
채워진 것들을 가지고 아이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건 무슨 나뭇잎일까?' '나뭇잎 색깔은?'

처음에 자유롭게 채웠다면,
그 다음 아이와 함께 규칙을 만들어보세요.



칸 마다 다른
자연물들로 채우기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누가 빨리 채우나
게임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람쥐샘은 1분으로 정했더니 너무 짧았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 평소 모습에 맞추어 시간을 조절해보세요.

다섯 살 시율이는 10칸짜리 계란판을 가지고 나갔어요.
세 살 시후는 계란판에 나뭇가지들을 담았는데
담자마자 계속 쏟아지기만 하네요.
시후는 일찌감치 놀이에서 빠져나와 공원을 혼자 누볐답니다.



시율이는 엄마에게 주겠다며
아파트 공원 잔디밭에 떨어진 꽃을 잔뜩 담아
하나, 둘, 셋
수 세기 놀이를 연결해 보았어요.

가정에서의 놀이 tip

- 계란판놀이의 목적은 계란판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집 주변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 계란판은 아이들이 충분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크기로 준비해주세요.
  큰 계란판도 아이들은 충분히 잘 채울 수 있답니다.

함께놀자 3. 우리도 함께 놀자

예비유아교사들의
놀이 이야기



- 첫 번째 이야기_ 숲속의 욕심꾸러기
- 두 번째 이야기_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닭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예비교사들과 함께
어릴적 즐겨했던 놀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서 자연물들을 모아오세요.
여기서 각자의 취향이 나오겠죠^^

꽃을 좋아하는 성은씨, 나뭇잎에 관심이 많은 철교씨



각자가 모아온 자연물을
매트에 올려두고,
그 사이에 술래
한 명을 뽑아
앉게 해 주세요.

가운데 앉은 술래가 오늘의 숲속의 '욕심꾸러기'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아온 자연물들은 '숲속의 보물'이 되는 거겠죠. ^^

숲속의 욕심꾸러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숲 속의 욕심꾸러기는
숲 속의 보물을 숲 속 친구들과 나누고 싶지 않아,
잠을 자면서도 물총을 꼬옥 쥐고
다른 친구들이 다가오면
마구마구 물을 발사한답니다.



숲 속 친구들은 욕심꾸러기에게 보물을 찾아오고 싶어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하지만 금새 물총을 맞고
보물을 하나씩만 가지고 다시 돌아온답니다.

숲속 친구들이 욕심꾸러기에게서 숲속 보물을 모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놀이할 수 있어요.



술래는 안대를
착용하고,
분무기를 앉은자리
옆에 둡니다.



술래가 숫자 10을 셀 동안
놀이 참가자들은
술래주변의 자연물 하나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술래가 쏜 물총의 물을 맞으면
자연물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옵니다.
보물을 모두 찾으면 술래를 바꾸어 놀이를 합니다.

놀이 tip

- 밖에서 놀이를 할 수 없을 때는 자연물을 대신하여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을 모아서 놀이합니다.
- 놀이가 늘어진다고 생각되면 물총을 맞은 후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술래를 바꾸어도 됩니다.
- 술래팀과 보물팀으로 나누어 시간제한을 두고 특정한 물건을 찾아오는 것으로 팀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릴 적 한 번씩 해 보셨죠?

예비교사들과 함께 추억의 그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비틀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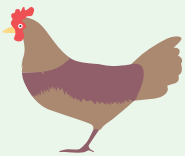


가볍게 워밍업하기 위해서
먼저 원형으로 모여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해보고, 따라해 봅니다.

몸이 풀렸으면 술래를 한 명 뽑아볼까요?
가장 멋지게 춤을 춤 사람을 투표로 뽑아도 된답니다.
술래가 외칠 주문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동물이름)' 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신가요?
닭을 예로 들어볼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닭"



쉽죠^^ 놀이 방법을 익히셨죠?
그럼 놀이를 해볼까요?



모두들 술래가 주문을
외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술래가 뭐라고 했을까요?
술래의 주문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람쥐' 였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누가 빨리 채우나
게임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닭'의 진행방법과 동일합니다.



술래의 등을 치고
바람보다 더 빨리
달려오고 있어요.

출발선에 들어오기 전에 술래에게 잡히면 술래를 교체합니다.

놀이 tip

- 술래가 뒤돌아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탑'을 외쳐서 움직이던 모습 그대로 멈추게 한다.
  자세를 어렵게 유지하도록 하여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 동물을 부르는 중간 중간 동물이 아닌 나무 혹은 꽃 이름을 부르고 혼동하여 움직이도록 하고 술래에게 잡히게 할 수 있다.

SERIES

3

방학, 성장을 위한 쉼



첫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이 두려우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 방학이 두려운 워킹맘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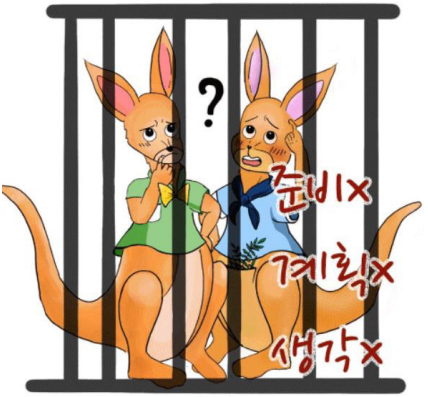
첫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이 두려우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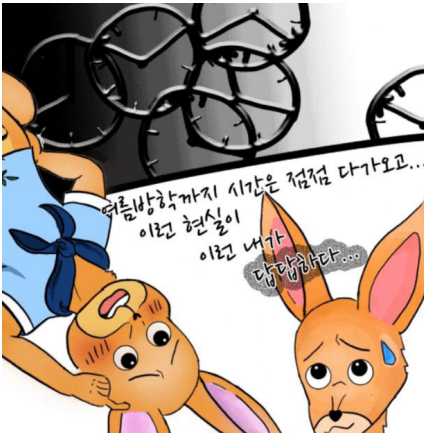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지만...
걱정...


?
준비X
계획X
생각X


계획만 하면...
통장에서 돈이 새가 되어
날아가는 마법같은 현실...


여름방학까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이건 현실이
이건 내가
답답하다...


우린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


놀아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

방학이 두려운 워킹맘들에게

"여보세요. 거기 가족별자리캠프 등록 사무실이죠.
이번 주말에 시작되는 캠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미 마감이 되어서 현재는 남은 자리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신청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는 언제 가족별자리 캠프를 신청할 수 있나요?"

"8월까지는 모두 마감이 되어서, 9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전화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9월이면 방학이 끝나는데요…"

바빴던 나는, 언제나 한 박자 두 박자 느렸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그리 발달되지 않아서 전화로 신청하는 캠프들이 많이 있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여름방학에 아이와 참여할 수 있는 캠프를 샅샅이 뒤져 알아본 다음 광클을 해서라도 아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캠프에 하나라도 꼭 참여했겠지만, 그땐 그러지 못했다.
나는 언제나 한 박자 두 박자 느렸다. 아, 어쩜 주변 엄마들이 그리도 행동이 빠른지….

바쁜 덕에,
아이 일과에 대한 나의 무심함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 다녀오고 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아이를 씻기고 저녁먹이고, 아이에게 책을 잠깐 읽어주고 아이가 잠들고 나면
하루가 지나갔다. 그 덕에 아이 일과 관리에 대한 나의 무지함이나 무심함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

여름방학은 달랐다… 한없이 스스로 작아진 나

하지만, 여름방학은 달랐다. 여름방학은 아이의 '성장'을 위한 '쉼'의 시간이라는데
나에게 여름방학은 엄마의 정보력과 부모의 재력을 시험하는 '경쟁과 비교'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전업주부로서 자녀의 여름방학 체험 활동을 직접 챙기는 엄마는 역시 대단하다
치더라도 나처럼 직장을 다니면서도 지역에서 하는 '저렴하면서도 교육적'이라고
소문난 온갖 체험활동 정보를 찾아서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살뜰히 챙기는 다른
워킹맘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이들과 은근히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졌던 것 같다.

차라리 방학이 없었으면…

모두가 교복을 입고 다녀서 누구도 사복 때문에 옷 걱정하거나 비교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차라리 유치원 방학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워킹맘이어서 단지 아이랑 놀 시간이 없거나 노는 방법을 몰라서 여름방학이 싫었던 걸까? 다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죄책감, 압박감, 불안감, 부담감…
벗어나고 싶은 감정들

방학이지만 여전히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죄책감**도 있지만,
방학이어서 아이의 비어있는 시간을 '내가' 교육적으로 채워야한다는 **압박감**
여름 방학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혹시나 내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유치원에 다니는 것만큼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부담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은 내가 여름 방학을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였던 것 같다.





현재는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여름방학 활동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도 나같은 워킹맘을 위해
여름방학을 자녀와 잘 보내라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넘쳐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돌봄 교실을 열어주고, 시나 지역에서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는 다양한 체험활동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지되고,
자녀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을 소개하고,
심지어는 유치원이 방학을 자꾸만 더 줄여가고 있다.

참 고마운 일이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사실 감히 생각도 못해봤던 일들이
지금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마을에 살고 있는 '나'는, 여름방학에 아이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든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부모인 '나'는 아이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름방학, 아이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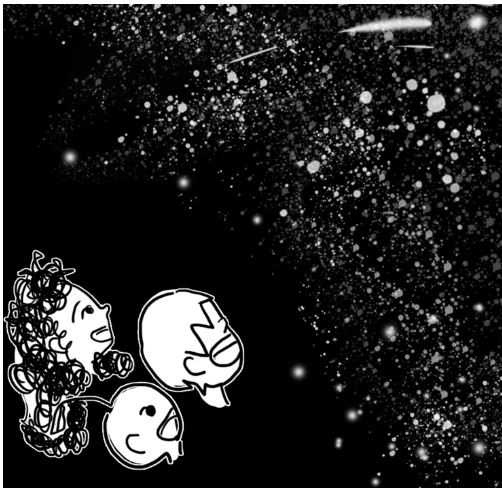
워킹맘이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여름방학이지만,
그동안 아이와 함께 하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을
돈들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함께 생각하고 찾아서 만들어보는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가족별자리 체험 신청에 탈락해서 속상해있던 나를 보더니
어느날 아이가 집앞에서 별을 보자고 제안했다.
직장에 다녀오고 나면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만 했었는데
어느날 돗자리를 들고,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가족들과 집 앞 천변으로 나갔다.
더위를 피해 여기 저기 돗자리를 편 다른 가족들이 보였다.
우리 가족도 돗자리를 펴고, 자리에 누웠다.
뿌연 밤 하늘에 가려 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돗자리를 펴고 누운 하늘에…

모기에 물릴까 온 몸에 뿌리는 모기약을 잔뜩 바르고 나왔는데
신기하게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는 둥,
밤에 누워보니 기분이 좋다는 둥,
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주위에 가로등과 조명이 참으로 예쁘다는 둥,
두런 두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천체 망원경은 아니지만
'가족 별자리체험'은 바로 우리집 앞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다.

여름방학에 난 아이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아이와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여름방학, 아이와 난 무엇을 했을까?
가족별자리 체험에 다시
전화를 하기보다
집 앞에서 돗자리를 펴고
아이와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 '시간을 달리는 엄마 오채선'

SERIES

4

유치원 놀이로 물들다



물들다 1. 놀이의 실천: 비우고, 채우기

물들다 2. 놀이 유치원으로의 변화

물들다 3. 놀이로 만들어가는 소확행

유치원에 가면

놀이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활기찬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유치원은 아이들의 놀이로 물들어 갑니다…



놀이의 실천 : 비우고, 채우기

지금은 오후 놀이 시간

아이들이 저마다 열심히 놀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따라가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선생님들은 놀이 중심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놀이중심???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어요.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땠나요?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첫 아이였고

저도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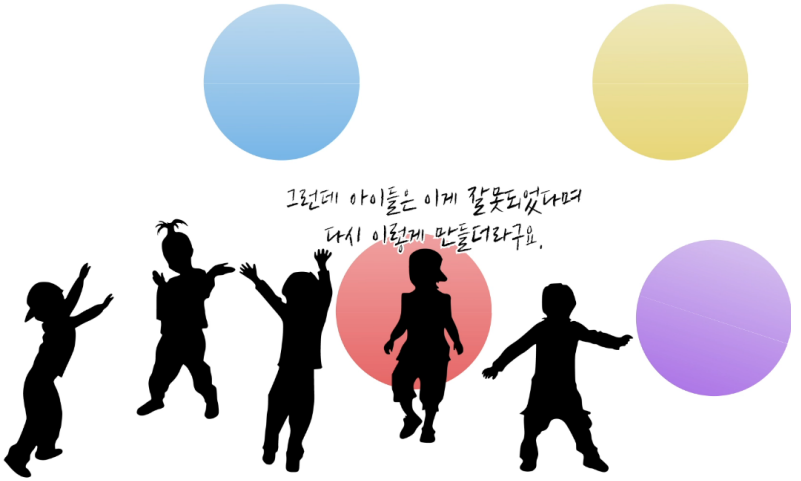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처음에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교실에 있는 책상을 이렇게 바꿔보았어요.

새로운 생각을 하라고…



그런데 아이들은 이게 잘못되었다면 다시 이렇게 만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아이들조차도 익숙한게 편하니까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면서
금방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원래의 놀이로
선생님이 되돌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유아교육의 전문가는

우리라는 거죠.

결과보다는 과정이… 실패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결과보다는 과정이
성공에 메이기보다는 실패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도 있었어요.

"학기 초에 업무분장할 때,
수업중심, 교육과정 중심 업무분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해요.



이건 혼자서 할 수 없는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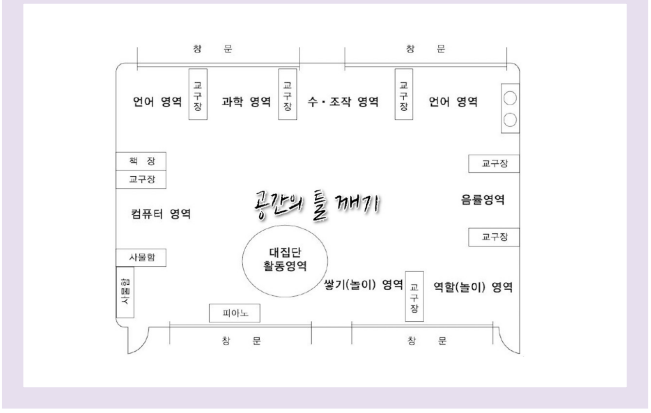
'전문적 학습공동체…'

그게 참…

저희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용기를 갖고 틀도 깨보았어요.





학부모님들께서 신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틀도 깨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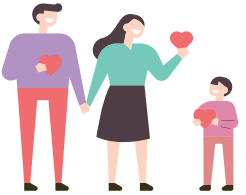




놀이로 운영한다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닌

같이 노는 마음,
같이 놀아야겠다 마음먹고,
그냥 같이 노는 것

이것이 우리가 놀이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놀이 유치원으로의 변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놀이 유치원으로의 변화



교육과정에서 놀이를 실천해보세요.

교육과정에서 놀이를 실천해보세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해보고 싶은데…

너무 걱정이 되네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지금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하는 건가요?

걱정이에요…

그럴 땐 비워보세요.



무엇을 비우나요?

선생님의 이런 생각을요.

"교실 속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내려놓아 보세요."
"교사가 항상 가르쳐 줘야 돼"
"내가 가진 고정관념 틀을 깨는 것"

선생님에게 놀이란?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놀이가
저에게도 놀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같이 동등하게
놀이하는 사람이니까”

채워보세요,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요



그리고
"괜찮아"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괜찮아, 아이들의 말을 듣고 해도 돼
괜찮아, 아이들이 할거니까
괜찮아, 아이들과 함께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놀이를 통해 자랄 수 있다는 '놀이의 힘'을 믿어주세요.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아이가 행복해져요.
부모가 행복해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요.

내려놓은 그 자리를

놀이로 채워요.



놀이로 만들어가는 소확행



“그래, 이게 행복이지!”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놀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녀의 놀이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놀이시간이요?
“저는 다른 엄마들하고 다르게 현실 엄마였어요, 되게…”
“내가 얘한테 방과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인 돈이 얼만데…”

놀이시간 같은건
생각할 수도 없네요.

부모인 나는…
내 생각만 하느라 아이들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못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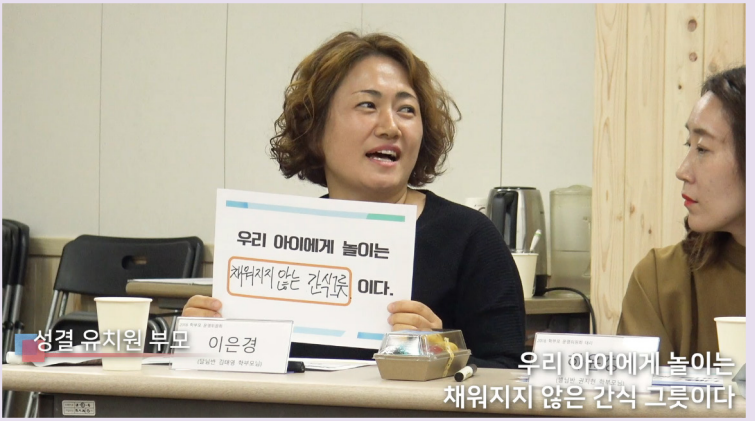
학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옆집의 엄마 얘기
다른 사람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였는데
정작 아이들 이야기에는 귀 기울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소용없더라구요.



학습을 너무 빨리 시켰더니
아이들이 너무 지쳐요.
그냥 멈춰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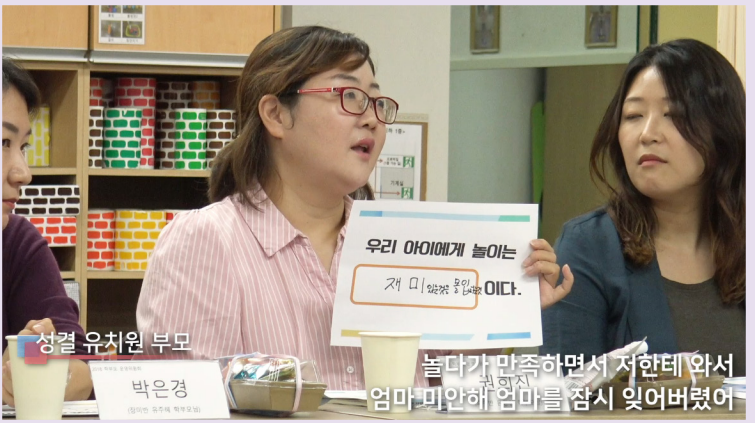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저희 아이한테 놀이는…

'끝이 없다.'
'채워지지 않는 간식 그릇이다.'
'즐거움을 모은 것'
'재미있는 것, 몰입하는 것'
'아이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놀이는 일상이고 생활'
'생각키우기'



저번에 친구들하고 노는데

세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논거예요.

놀다가 만족하면서

저한테 와서

"엄마, 미안해. 엄마를 잠시 잊어버렸어."

놀이할 때, 아이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아이의 표정,

아이가 행복한 거

그 아이 표정을 먼저 봐요.



놀이할 때 아이들의 관심이 들립니다.
들리지 않을 때는 아이의 표정을 보세요.
환히 웃는 그 웃음과 표정과 땀방울에

“즐거웠어요.”
“잘 놀았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놀면서 느꼈던 세상의 기쁨과
행복이 아이의 표정에 담겨 있어요.

놀이로,
아이에게 행복을 찾아주세요.



아이들의 표정에 귀 기울여보세요.



집필진

- **문무경** |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강은진** |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 |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박원순** |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김희수** | 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 **김경철** | 원장(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 **오채선** |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 **정아림** | 연구원(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 **이성은** | 연구원(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 **인철교** | 교사(서울월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구협력관

- **문복진** | 연구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김미진** | 교육연구사(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부모교육 콘텐츠 '놀자'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www.moe.go.kr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이 책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ISBN 979-11-90485-41-8